

(급) 쌍용자동차 연행자 이창근 등 영장실질심사 탄원서 연대 요망

4월 21일 저녁 쌍용자동차 22번째 희생자를 추모하는 범국민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22개의 관과 상여를 들고 평택 쌍용자동차 정문에 도착했던 사람들과 경찰 간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회사측에 이런 절박한 마음을 전하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까닭없이 이런 노사간의 자율적인 만남을 무작정 막기만 했습니다. 그리곤 이 과정에서 연행된 이창근 씨 등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하고, 누구도 다시 끌려가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긴급히 탄원서를 조직하고 있으니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붙인 탄원서 양식에 동의하시면 출력한 후 간단한 이력사항과 자필 성함, 그리고 사인을 해서 아래 팩스번호로 부쳐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처도 남겨둡니다. 마감은 내일(24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 팩스 보내실 곳 / 02-2670-3714
- 문의처 / 고동민(쌍용해고자) 010-5602-6632

탄 원 서

1. 쌍용차 정리해고가 있는지 1,000일이 넘었습니다. 긴 시간, 절망과 고통으로 노동자 스물 두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은 이들의 고통도 못지않습니다. 죽어가는 동료들 그저 지켜보며 버티는 절망감과 고립감은 살았으며 산 것이 아닙니다.

2. 정리해고 1000일이 되던 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더 이상 쌍용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님을 선언했습니다. 스물 두 분의 죽음은, 해고는 살인이며 사회적 타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들에 떠넘기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이는 있으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회사와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3. 우선 기술해외유출과 회계조작으로 부당한 정리해고를 단행한 회사에게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쌍용자동차 기술 해외유출은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일부만 기소한 검찰과 중요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는 계속 끝까지 다툼 예정입니다. 기술의 해외유출과 회계조작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사실입니다. 쌍용자동차는 회계를 조작하여 부채비율을 561%로 만들었고, 감사보고서, 경영정상화 방안 회생법원을 철저히 속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런 사실을 숨긴 채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하지 않았고, 지금도 자의적인 회사정상화 기준을 핑계로 단 한명의 노동자도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고발해 거듭 법의 판단을 물을 것입니다.

4. 나아가 쌍용자동차는 2009. 8. 6.부터 1년 후 무급휴직자들(461명)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하여 놓고서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합의 이행 날짜인 2010. 8. 6.

부터 2년 가까이 지난 상황입니다. 무급휴직자들의 경우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직장을 얻기도 어렵고, 해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도 못받는등 해고자들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5.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쌍용자동차 앞에서 있었던 집회는 먼저 간 스물 두분의 노동자를 추모하고, 쌍용자동차의 책임을 묻는 자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그러한 충돌을 의도하였거나 공권력을 경시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참혹한 상태에서 경찰의 최루액으로 상황이 악화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6.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서 체포된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너그러운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4월 23일

직업 및 직책 /

연락처 /

이름 / (사인)